

시온 주보

제2532호
2024년 12월 1일(다해)

대림 제1주일

최후의 심판(부분)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Michelangelo Buonarroti, 1475-1654)
1534-1541, 프레스코화
시스티나 경당, 바티칸



입당송 | 시편 25(24),1-3 참조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좋아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제1독서 | 예레 33,14-16

화답송 | 시편 25(24),4-5 7-8, 8-9, 10과 14(◎ 1)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

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

제2독서 | 1테살 3,12-4,2

복음환호송 | 시편 85(84),8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음 | 루카 21,25-28.34-36

영성체송 | 시편 85(84),13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모든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에 아파하며...



구요비 읍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교회 전례력으로 새해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오시는 구세주이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대림 시기로 믿는 이들을 초대합니다. 교회의 시간 전례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된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인간의 삶과 역사 안에,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늘 찾아오시고 함께하신다는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현재 이시기에 신앙인들은 지금, 여기에서 그분의 현존과 역사하심을 교감하고 통교(communio)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복음이 묘사하는 세상 종말은 예전에는 묵시문학적 표현으로만 받아들여졌는데, 요즘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자연재해 현상을 예언하는 말씀은 아닐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오늘날 전 지구적인 과제로 떠오른 기상 이변과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은 자연 생태계의 위기와 파괴 현상을 보며 “너희는 땅과 하늘의 창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루카 12,56)라는 주님의 질책을 마음에 새겨야 할 때가 아닌지요?

1980년대 말, 제가 구로공단에 인접한 구로1동 본당에서 사목할 때 여러 공장에서 내뿜는 유해가스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했습니다. 구역장·반장 모임에서 주변 환경에 대한 대책 논의를 하던 중 어느 반장님이 “화학 시간에 배운 리트머스 실험지의 사용 원리를 이용하여 공장 주변

의 대기오염 상태를 측정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따라 오랫동안 삼삼오오 짝지어 조사한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반장님들이 환경 위기의 주범은 공장에서 배출하는 유해 물질과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매연이라고 의견을 모았는데, 지금 와서 돌아해보니 ‘참으로 예언적인 통찰이었구나!’ 하고 경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날 지구 환경과 생태계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인류 공동의 집 관리인인 인간의 지나친 탐욕과 오만에 기인한다는 슬픈 현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루카 21,34 참조) 에덴동산의 청지기인 아담(인간)의 일은 하느님께서 이루신 창조 질서의 보존과 회복에 있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소유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 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로마 8,22-23)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림 시기를 시작하며 하느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 신앙인들은 “늘 깨어 기도하여”(루카 21,36)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조에 오염되어 속화된 우리의 감성과 영혼을 주님의 영적인 감각과 정신으로 성화(聖化)함으로써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묵시 21,1)의 도래를 위하여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부분)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작품은 시스티나 경당의 제대 뒷벽 전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가 미사와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는 이곳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심판자 예수님 곁에서 성모님과 성인들조차 두려움에 떨게 하는 하느님 정의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대림 시기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담당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벼랑 끝에 서고나니 올 데가...



장희진 목사 | 배우

한 때 저희 가족도 주일만 되면 독실하셨던 할머니와 함께 온 가족이 미사에 참례하러 가는 것이 당연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였던 제게 미사는 왜 그리 재미없던지요. 저는 그저 일요일 아침에는 늦잠도 자고 티브이나 보면서 놀러 가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던 그야말로 철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부산으로 전학을 갈 무렵, 식구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하느님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무려 20여 년을요.

그러던 어느 날, 뒤돌아보니 저는 어느새 30대가 되었고, 그 무렵 한창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위기를 맞는다고는 하지만, 저는 너무나 나약해져 있었기에, 당장 내일이라도 삶이 끝날 것만 같은 위기감과 불안감으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것만 같았고, 이 세상에 내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절망감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어느 때처럼 또다시 꿈꿨던 밤을 꼬박 새운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성당에 나갔습니다. 특별한 계기도 없었지만, 가까운 성당을 검색하고 미사 시간에 맞춰 성당으로 갔습니다. 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날의 감격스러운 기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성당 앞에 서는 순간 제 마음은 뭐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고요하고 평안해졌거든요.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손을 잡고 성당 입구에 들어갈 때 느꼈던 그 평온한 기분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작 올걸 그랬다는 후회가 물려왔습니다.

미사를 드리는 내내 저는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동안 잊고 살았어요. 제가 벼

랑 끝에 서고나니 찾아올 데가 여기밖에 없네요. 용서해주세요. 저 다시 받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드리는데, 오랫동안 메말랐다고 생각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더욱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고통스럽게 고민했던 것들, 저를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그래, 잘될 거야. 이까짓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겐 하느님이 계시잖아! 그냥 열심히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날부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절 돕기 위해 나서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가톨릭 신자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꿈 같기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우연한 일치로 일어난 일이 아니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느님을 절실히 믿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기도에 하느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굳건히 믿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 지향

12월

희망의 순례자들

(다가올) 이번 희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일상의 삶 안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인
희망의 순례자로 변화시켜 주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꿈을 꾀도 될까요?



중학생이던 민주(가명)는 엄마의 가출 이후 폭력적인 아빠를 피해 집을 나왔습니다. 학교도 갈 수 없었던 민주는 밖으로만 맴돌다 나쁜 친구들, 나쁜 아저씨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고팠던 민주는 친구들을 믿고 의지했지만, 그들은 민주를 함부로 대하고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민주는 어린 나이에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채 거리를 전전하다 엘리야 수녀님을 만났습니다. 쉼터에 머물면서 상담도 받고 병원도 다니며 비로소 민주는 아픈 몸과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유혹으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민주를 포기하지 않은 수녀님 덕분에 민주는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마침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민주가 아픈 과거를 딛고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민주 치료와 학업을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녔던 엘리야 수녀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하지 못해도, 엄마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7살 승민이(가명)는 축구를 너무 잘합니다. 1학년임에도 학교 대표가 되었고, 고교축구대회에서도 여러 번 우승을 했습니다. 이대로 축구를 계속한다면 장차 한국을 대표할 뛰어난 선수가 될 거라고 모두들 칭찬합니다. 하지만 승

민이는 올여름 학교 전지훈련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270만원이라는 훈련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승민이네 가정 형편이 어려워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홀로 승민이를 키운 엄마는 승민이의 전지훈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친 엄마가 식당 일도 하지 못하게 되자, 승민이가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엄마 대신 생활비를 보태야 했습니다. 승민이가 안쓰러워 아픈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본인 때문에 엄마가 다쳤다면 승민이는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김원호 신부입니다. 민주가 머물던 청소년 쉼터를 비롯하여,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아이들 개개인의 학업과 진로 계발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가족에게 외면당하거나,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민주와 승민이같은 친구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들의 미래를 꿈꿀 생각조차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학업이나 진로 계발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소규모 시설에서 이에 필요한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나이나 자격 등의 조건 없이 자신들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꾸는 꿈’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묻습니다. 자기들이 ‘꿈’을 가져도 되냐고... 모든 아이들의 출발점이 다 같을 순 없을지라도 적어도 돈 때문에 자신들의 꿈을, 희망을, 미래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교회가 작은 ‘마중물’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나의 작은 나눔으로 한 아이의 미래가,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가슴 벅차고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요? 신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시길 청해 봅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004-4294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24년 11월 30일~2025년 1월 3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위해 씁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html/dh/spon_songil) - 사랑의손길’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① 인터넷 신청: www.caritasseoul.or.kr > 후원안내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02)727-225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함께하는 국내의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의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희망의 순례자들’ 회년

희망하는 교회, 순례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로마 15,13)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2025년은 25년마다 돌아오는 회년입니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마흔아홉 해가 된 다음 해 “너희는 이 오십 번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회년이다.”(레위 25,10)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50년마다 회년을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1300년에 보니파시오 8세 교황님께서 이 은총의 해를 처음 제정하신 이래 50년마다 이를 기념해 오다가, 15세기부터는 모든 세대가 최소한 한 번 회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25년으로 주기를 바꾸었습니다. 우리 서울대교구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희망의 순례자’ 회년에 발맞춰, 올 한 해 사목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하여 실천하고자 합니다.

1. 희망하는 교회

이번 회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희망의 순례자’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회년의 목적과 의미는 그저 ‘전대사를 얻는 좋은 기회’에 그치지 않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깊여가는 해로 우리를 초대함에 있습니다. 이 뜻깊은 회년에 예수님과 더욱 깊은 만남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에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수없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의 땀과 피를 바탕으로 이룩한 경제적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고 있지만, 풍요로움을 음미할 겨를도 없이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급급한 상황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알게 모르게 커져 가고,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크게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청년 실업 문제,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현상도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정신 건강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또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분단된 조국의 평화 통일에 대한 관심은 식어가고, 미·중 갈등을 포함하여 남북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긴장과 갈등이 커져가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의 지평을 열어주셨기에, 이 영원한 생명의 지평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맞추어 변화시키도록 불리움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로마 8, 24-25 참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사람들입니다.

2. 순례하는 교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번 ‘희년 선포 칙서’〈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에서 “모든 희년 행사의 근본 요소는 순례”라고 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순례 여정을 나서는 것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도보 순례는 침묵, 노력, 단순한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됩니다.”라는 교황님의 말씀대로, 순례는 ‘우리 인생이 바로 순례하는 여정’임을 묵상케 합니다. 도보 순례에서 흘리는 땀방울을 통해 우리네 삶에서 땀 흘리는 수고로움의 고귀한 의미도 되새기게 되고, 순례 여정을 함께 하는 우리가 모두 영원한 생명을 향해 시노드 여정을 함께하는 길동무임을 새삼 고맙게 느끼게도 됩니다. 나아가, 도보 순례는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묵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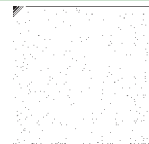
순례하는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 ‘영원의 도시’ 로마 순례가 아니더라도, 서울 도심에도 ‘교황청 승인 국제 순례지’인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2025 ‘희망의 순례자’ 희년에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의 성지 중 적어도 한 곳 이상을 도보로 순례해 봅시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례 여정 중에 순교자들

의 믿음을 묵상해 보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여기에 더하여, 순례하는 교회로서 잊지 말아야 할 더욱 중요한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들어가는 영혼의 내적 순례 여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 일미사를 참례하고 윤리적 삶을 지켜나가는 단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만남, 우리 삶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구원자이신 그분의 인격과의 만남의 여정이요, 그분과 사랑의 우정을 깊여가는 여정임을 잊지 맙시다. 이를 기억하며, 내적 순례의 여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앞에 머물면서 그분과 ‘단둘이 나누는 우정의 대화’ 시간인 성체조배에 맛을 들입시다. 모든 신자가 본당에서 하는 성시간이나 성체조배는 물론,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매월 첫 목요일 저녁에 하는 ‘교구장과 함께하는 성체조배’에도 이 희년 중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직접 참여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을, 성체를 통해 만나봅시다.

3. 선포하는 교회

어느 학자가 ‘하느님은 명사(noun)가 아니라 동사(verb) 이시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저 위에 좌정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시는 분이요, 우리를 당신과 인격적 관계로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에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항) 이렇게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사랑을 혼자만 마음속에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을 노래하고 외치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루카 19, 40)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복음의 기쁨> 9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은 널리 퍼져 나가기 마련입니다. 진리와 선에 대한 모든 참다운 경험은 그 자체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성향이 있고, 진정한 해방을 맞본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의 요구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선은 퍼져 나가면서 뿌리내리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 14)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1코린 9, 16)

복음의 기쁨을 맞본 그리스도인은 이제 ‘선포하는 기쁨’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선포는 단지 큰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 먼저, 애덕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야고 2, 17)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 주겠습니다.”(야고 2, 18)하신 야고보 사도를 본받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애덕 실천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는 기쁨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2) 다음으로,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모습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동행의 모습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모두 우리 사회의 동등한 주인공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주인공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좋은 모습입니다.

(3) 끝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2027년 여름에 서울에서 진행될 ‘세계청년대

회’는 단지 청년들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함께 개최 준비를 해나가는 전 과정을 통해 남녀노소가 다 함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모두를 위한 잔치요, 신앙의 체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① 첫 번째 방법은 ‘묵주기도 10억 단 바치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② 두 번째 방법은 대회 기간 중 세계 각국에서 온 청년들에게 ‘홈스테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③ ‘세계청년대회’에 주역으로 참가하는 세 번째 방법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입니다. ‘세계청년대회’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장기 봉사든 단기 봉사든 방법상으로도 아주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희망의 순례자’를 주제로 2025년 희년을 맞는 우리 모두 ‘희망하는 교회, 순례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를 살아가면서 복음의 기쁨을 더 깊이 체험하고, 선포하는 기쁨을 누리는 한해로 가꾸어 나갑시다.

교회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하신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과 복자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024년 대림 시기에

十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대주교 정순택 베드로

오늘(12월 1일)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며, 전례력은 '다해'를 따르게 됩니다

12월 8일(주일)은 대림 제2주일로 제43회 '인권 주일'이며 제14회 '사회 교리 주간(12월 8일~14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2027 서울 WYD 홈페이지(<https://wydseoul.org>) 개설
세계청년대회 역사와 준비기도문 등을 비롯한 각종 WYD 관련 정보는 물론,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에 따른 봉헌 현황도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2년 12월 8일 박정렬 바오로 신부(51세)
- 1968년 12월 8일 임종구 바오로 신부(58세)
- 2001년 12월 7일 이운기 스테파노 신부(44세)
- 2002년 12월 8일 김정남 안드레아 신부(46세)

이성국(바오로)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이성국(바오로) 신부님께서 지난 11월 20일(수)에 선종하셨습니다. 이성국 신부님은 1962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1990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면목동·목동성당, 군중, 사당5동성당, 교포사목, 난곡동·양재동·송천동성당에서 사목하셨습니다. 11월 22일(금)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국군 장병 및 수감자를 위한 성탄 위문금

본 교구 소속 군중 신부들이 전후방에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을 위문하고자 각 본당에서 성탄 위문금을 모금합니다. 또한, 좌절과 실의 속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수감자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한 위문금도 모금합니다.

교구청 알림

학교사목부 CA 설립 25주년 기념미사

학교사목부 CA 설립 25주년을 맞아 2024년도 아이브랜드 봉사자의 날 미사에 온회 봉사자들을 초대합니다
때, 곳: 12월14일(토) 14시, 가톨릭청소년회관(역삼동)
신청: 12월5일까지 / 홈페이지(www.kyccs.or.kr) 참조
문의: 02)553-7320~1(일·월 휴무) / 이정상 주교님께서 집전하시는 주일미사로 봉헌됩니다

청년 환경모임

고통받는 공동의 집 지구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들을 위해 실천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초대합니다 / 문의(신청): 02)727-2283, 2278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대상: 환경 파괴의 상황과 기후 위기의 시대에 함께 기도하고 행동할 청년(만 35세 이하)
때, 곳: 12월7일(토) 15시, 가톨릭회관 613호

가톨릭 소방공무원 <자기돌봄을 위한 1일 피정>

문의(접수): 02)727-2081, 010-6234-6910 직장사목팀 큰사랑봉사회

1) 소방사목 큰사랑 봉사회 봉사자 모집

대상: 기도 생활과 봉사에 관심 있는 분
문의: 010-6234-6910 직장사목팀 큰사랑봉사회

2) 음악이 있는 중립동 약현 직장인미사 500회기념미사

대상: 중립동 약현 성당 주변 직장인 및 관심있는 교우 /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때, 곳: 12월5일(목) 12시10분, 중립동 약현성당

주교좌 명동대성당 2024년 대림특강

때, 곳: 12월2일~16일 매주(월) 오후 7시~8시, 명동대성당 대성전(3주간) / 문의: 02)774-1784

12월2일(월)	희망하는 교회, 순례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	정순택 대주교 (서울대교구장)
12월9일(월)	희망의 순례자들	조성봉 신부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임)
12월16일(월)	여러분의 희망이 성경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로마 15,13)	김영남 신부 (前 가톨릭신학대학 교수)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12월5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포스트홀) / 문의: 02)727-2407, 2424
집전: 감동원국장 신부, 유동철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연행 개인전: 1전시실
글라캘리아카데미 회원전: 2전시실
김태희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2월4일(수)~12일(목)

2025 신구약 성경통독 회원 모집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때: 매주(월) 13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 재방송 1개월 수강 가능)
2025 이스라엘 8일 파정: 11월12일~19일(파정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가톨릭 영유아(만 5세 미만) 부모 교육

주제: 우리 아이와 함께 성경 읽기
강사: 박중수 신부(염리동성당 주임)
때, 곳: 12월11일(수) 10시~12시30분, 영성센터 202호(구 계성여고) & 온라인교육(ZOOM)-양방향 동시 진행
신청: 11월25일(월) 10시~12월5일(목) 16시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수
주최: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순교자현양미사와 하루일정 전국순례 안내

1) 순교자현양 신심미사(342회)

때, 곳: 12월3일(화) 오전 10시, 절두산순교성지
2) 하루일정 전국순례
때: 12월15일(일), 12월17일(화), 12월21일(토)
곳: 감곡 매곡 성모 순례지성당, 여주 순교터, 여주 부엉골 / 문의: 02)2269-0413
신청: 12월2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5만원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때, 곳: 12월2일(월) 오전 10시30분~11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1445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12월3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벽분당': 함흥교구 함흥 본당
문의: 02)727-2420

생명위원회

1) 12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12월2일(월) 11시, 명동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 12월 임신부와 태아축복식

때, 곳: 12월14일(토) 오후 4시, 명동성당 내 영성센터 경당(1F, B-103호) / 준비물: 미사준비 일체
신청방법: 12월11일(수)까지 전화(02)727-2367로 신청

한국교회사연구소 가정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기원 성지순례

2025년 희망의 순례자(한국교회사 기초부터 완주장까지)

3월8일(토)	신시도 체류지-불무골교우촌-산막골교우촌
4월5일(토)	청양다락골-도양골성지-삼터
5월17일(토)	103위 시성 타~124위시복타-당고개-종로성당-명동대성당
6월7일(토)	김성교우촌 김화성당-만산교우촌 화천성당-황해도 교우촌
7월12일(토)	망에목성지-배티성지-봉암성지
8월2일(토)	점포리교우촌-수리산성지-손골성지
9월6일(토)	오두재교우촌-진발들교우촌-진산성지
10월11일(토)	남방대성지-성거산성지-한덕골 교우촌
11월1일(토)~2일(일)	죽림굴-진목정성지-신나루골성지 / 숙소: 툇정포교
	전안리성지-서지교우촌-배론성지(미사) / 베네딕도수녀회

회비: 1인 총77만원 분할 납입(입금순 40명까지, 일정 빠져도 회비 납입 가능한 분)
도보순례 가능한 분 / 단체품목과 기초자료부터 제공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

인준단체 알림

모임

수도자와 함께하는 성탄전례 피정

때, 곳: 12월23일(월)~25일(수), 베네딕도영성관(주최)
회비: 20만원 / 010-7103-3425 툇정포교베네딕도수녀회

지혜의 샘 12월 프로그램 / 문의: 010-3248-9705

대림 피정: 12월11일, 지혜의샘 북방선교 기도공동체
강사: 이용권 인천교구 총대리 신부, 한영임 회장

노들담수녀회 청년 송년 피정

대상: 35세 이하 미혼 청년 15명 / 회비: 8만원
때, 곳: 12월27일(금) 20시~29일(일) 15시, 서울
노들담 교육관 / 문의: 010-3930-6730

글라셋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12월8일(일) 11시~15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예수성심 남녀 전교 수도회 대림 피정

대상: 40세 이하 미혼 남녀 / 회비: 1만원
때: 12월15일(일) / 문의: 010-2817-3101
곳: 서울 예수성심전교수도회 관구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때, 곳: 12월7일(토) 15시~18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 010-9363-7784
때, 곳: 12월20일~23일·2025년 1월3일~6일·1월17
일~20일·2월7일~10일·2월21일~24일, 성 도미니
코 수도원(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12월3일 박현민 신부 12월10일 김재덕 신부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연말 피정(2박3일)	12월20일~22일
영신수련 8일 피정(9박10일)	2025년 1월3일~12일

12초초지구 성령기도회

미사·안수 / 문의: 010-7393-7924

때, 곳: 매주(월) 14시, 서초동성당 대건관 1층

12월2일 김현우 신부	12월9일 양창우 신부
12월16일 백운철 신부	12월23일·30일 자체기도회

예수회 생활기도수련원 피정 강좌

곳: 강남구 삼성동 / 문의: 010-3845-3045

기도따라하기 하루 피정	12월18일 / 회비: 3만원	정규한 신부
'내 삶의 디딤돌 잠심'	12월6일 개강, 매주(금)	
10주 강좌	13시30분~16시	

피아골 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2025년 2월25일~26일
이탈리아 일주	5월14일~25일
홍성남 신부와 도쿄	3월10일~14일

골롬반 청년 대림 피정(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대상: 23세~34세 신자 / 문의: 010-5033-9302
때, 곳: 12월14일(토) 10시~17시, 성골롬반외방선
교수녀회 / 회비: 1만원(현장 납부, 점심식사 포함)
접수: bit.ly/골롬반청년피정12

두루미 생명 평화 여행

때: 일일 12월14일(토)·2025년 1월11일(토), 1박2일
1월25일(토)~26일(일) / 대상: 누구나(선착순 40명)
곳: 철원-연천-파주 / 출발: 민족화해센터
회비: 일일 5만원, 1박2일 10만원(성인)·7만원(청소년)
문의(접수): 031)941-2766(www.pu2046.kr) 민족화해센터

메추고리에 기도 일일 피정·12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
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1) 메추고리에 기도 일일 피정
메추고리에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안수(중식 무료)
때: 12월2일(월) 10시~16시
2) 12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때: 12월14일(토) 12시~17시30분 / 미사·안수(중식 무료)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연말연시 12월30일~2025년 1월2일(한라산·해남
이·해돋이), 한라산 눈꽃산행 1월17일~19일·1월
23일~25일·2월8일~10일·2월14일~16일·2월22일
~24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3월1일~4일·3월9
일~12일, 생태순례 3월15일~17일·3월22일~24일
·3월28일~30일 /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연말연시 12월29일~2025년 1월1일(한라산·
해남이·해돋이), 12월14일~16일·3월1일~3일·3월
8일~10일·3월18일~20일, 한라산 포함 1월11일
~13일·1월16일~18일·1월20일~22일·1월24일~26
일·2월7일~9일·2월15일~17일(제주T/S)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12월20일(금)~22일(일)	이성효 주교
2025년 1월17일(금)~19일(일)	신우식 신부
2025년 3월14일(금)~16일(일)	서상범 주교
2025년 4월17일(목)~20일(일)	성주간 피정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2월21일(토)~22일(일), 2025년 2월14일(금)~15일(토)
3박4일	12월5일(목)~8일(일) 4#5일 2월17일(월)~21일(금)
8박9일	12월26일(목)~1월3일(금), 1월6일(월)~14일(화)
40일	12월14일(토)~1월22일(수)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일 첫번째(금) 12월6일 10시~15시30분
대림 피정	12월3일·12월10일·12월17일 매주(화) 10시~16시
대침묵 피정(요한묵시록)	12월11일~14일(3박4일)
송년 피정	12월31일~2025년 1월1일(1박2일)
다네이영성수련(대침묵)	1월10일~12일(2박3일)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문의: 02)324-0852 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12월10일~24일 매주(화)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정규입학: 초5~고2, 미국·아일랜드(단기 가능)
문의(예약):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라-전진상 영성센터 특강

주최: 그리스도 영성의 올바른 이해 / www.jiscn.or.kr
강사: 박재찬 신부 / 문의: 02)726-0700 전진상영성센터
때, 곳: 12월19일(목) 10시~13시, 전진상 영성센터(명동)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멀티미디어전공 5차 모집

접수: 12월2일(월)~11일(수) / 문의: 02)705-8678
전형일: 12월14일(토) / 모집: 게임그래픽·만화에
니메이션, 게임개발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본
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입학시 장학혜택 제공, 학
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3년 이내 학사취득 가능
홈페이지: www.soganggame.ac.kr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 무료 강좌	매주(수) 14시 / 누구나 환영
초보자 반주장구	매주(목) 13시30분 / 회비 있음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사,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접수: 2025년 1월17일(금)까지 / ci.catholic.ac.kr

교리교육학과	10시50분~15시40분(2년, 주5일)	선교사(교리교사)
종교교육학과	19시~21시35분(2년, 주4일)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10시50분~15시 40분(1년, 주3일)	본원졸업생(교리·종교·통신과 제) 및 이에 준한 과정 이수자

제25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cpbccamp.com)

미국	2025년 1월15일~2월4일(3주) / UCLA·UC버클 리·스탠포드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디즈니 랜드,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사이판	2025년 1월11일~2월4일(4주)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 수업, 마나가하섬, 워터파크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

2025년 1월 개강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월)	문화유산으로 보는 교회사(중세)	이진현 신부
(월)	비블리드라마(성경드라마) 피정	김영근 신부
(월)	월요무로 피정-코헬렛 함께 읽기 개강: 12월23일	이근상 신부
(화)	고대 그리스의 시간과 그리스도교 신학	김민철 신부
(화)	구약성경 아카데미-모세의 삶과 신앙	주원준 박사

2024년 행복한 겨울캠프 접수(양업고등학교)

대상: 현재 중학교 1·2학년 / 문의: 043)260-5076
때, 곳: 2025년 1월3일~5일(2박3일), 양업고등학교
접수: 12월17일(화) 오전 10시, 홈페이지 선착순
회비: 15만원 / 접수 확정 문자 후 이체

생활성서사 대림특강-지혜여정 묵시록

강사: 한재호 신부(제주교구 신성여자중학교장)
때, 곳: 12월14일(토) 14시, 까리파스 여정 성서
교육관(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 회비 없음
접수: 생활성서사 홈페이지 / 문의: 02)945-5985

가톨릭성서모임-직장인을 위한 축복받은 성경읽기

그림형 성경통독-혼자서 읽기 어려운 성경, 함께
읽어보세요 / 대상: 성경통독을 원하는 분
때: 민수기반 (월·화·수·일) 20시 비대면(12월경부
터 시작), 요한복음서반 (월·화·수·일) 20시 비대
면(12월경부터 시작) / 문의: 02)824-4363
접수: 가톨릭성서모임 홈페이지(biblemove.com)

모집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봉사자 모집

전화상담 봉사하실 여성 신자 / 문의: 02)990-9360

가르멜재속회원 모집(알베르토공동체)

대상: 만 55세 이하 세례 견진자
모임: 매월 넷째주(일) / 문의: 010-7673-5013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식당 자원봉사자 모집

때, 곳: 평일 10시~13시(요일 협의), 센터 내 B1
문의(접수): 070-7209-2938 전화 및 온라인 접수

아퀴나스합창단 단원 모집

1967년 창단된 아퀴나스합창단이 88회 정기공연
(구노의 오라토리오 '구원, Redemption', 2025년 4월)을
함께 할 단원(55세 이하, 전공불문)을 찾습니다
오디션 문의: 010-8000-3194 총무

미사

성공로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12월6일(금) 14시~16시 / 문의: 02)929-2977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12월19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적)

내용: 성모님의 요청대로 미사
때, 곳: 12월7일(토)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12지구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미사와 주일학교

대상: 초등~성인기 발달장애인(지적 장애·자폐성 장애)
때, 곳: (일) 15시(교리)·16시(미사), 잠원동성당
문의: 010-9942-2590 (문자) 엔젤스주일학교(잠원동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후원회원,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곳: 12월4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대
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서울베네딕도 상담센터(서울베네딕도수녀회)

곳: 돈암동 / 국가지원 전문심리상담 제공기관
부부·가족상담 가능 / 문의: 010-2199-3439

일원동성당 혼인미사 / 문의: 02)2226-2291

아름다운 성전과 카페,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웨딩환경, 전철 3호선 대청역 2분 거리, 300대 주차
때: (토) 12시 / 홈페이지: www.mylwon.com

익산 성글라라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3201-0520 노경덕 신부(상담자)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2024년 성탄 평화마켓

청년 작가들이 만든 핸드메이드 성물을 만날 수
있는 평화마켓에 초대합니다 판매금액의 일부
는 청소년들에게 기부됩니다 / 문의: 02)338-7832
때, 곳: 12월14일(토) 12시~18시,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주최, 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1층 카페

바보의나눔 유튜브채널 '러브온탑'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 스타들의 선한 영향력을
담은 '탑 쌓기 챌린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 매주 새로운 스타들
의 러브온탑,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유튜브 검색창에 '@러브온탑'을 입력하세요
(www.youtube.com/@러브온탑) / 협찬 문의: 02)727-
2507(fund@babo.or.kr) 바보의나눔 모금홍보팀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대인관계, 부부, 유학생, 사별, 우울,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 / 문의: 010-9146-7654

부부모임 초대의 날 / 문의: 02)744-0840

월1회 생활과 복음을 나누는 가정공동체를 원하는 부부
때, 곳: 1차 12월15일(일)·2차 2025년 1월19일(일)
13시~16시, 햇살사목센터(주최, 혜화로2길20)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모집

분야: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 문의: 02)740-9707, 8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가톨릭청소년이동쉼터 서울아지트 직원 모집

분야: 후원자 회계 담당자 / 이메일: ajit@ajit.or.kr
후원자 회계 및 응대 관련 경력 우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ajit.or.kr) 참조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분야: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파트타임 지원도
가능) 2명, 방문진료 전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셉의원 홈페이지 (www.josephclinic.org) 공지사
항 참조, 지원서 접수 / 문의: 02)2634-1760

목동성당 방호원(계약직) 1명 모집 / 문의: 02)2643-2212

대상: 세례받은 분(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 11월
23일(토)까지 이메일(subhee@seoul.catholic.kr) 및 방문 접수
1차 서류 전형(12월15일),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성북동)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① 주방근무자 0명, ② 시설
관리자 1명(소방안전·도시가스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
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12월8일(일)까지 우편
(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호준 신부
삼성산 성령 수녀회	수시	관악구 호암로 454-16(신림동)	010-3551-5877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867-3217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수시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199-4995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게재된
시간 검색

신간 성체성월

정종득 역주
수원교회사연구소 | 412쪽 | 2만5천원
문의: 031)792-8541

‘고전신심서적총서’의 하나로 발간된 이 책은 수원교회사연구소장 정종득 신부가 1890년 필사본 《聖體聖月(성체성월)》을 현대 우리말로 옮기고 옛 천주교 문헌을 풍부하게 활용하여 주석을 붙인 결과물이다. 역주본 뒤에는 영인본, 판독본, 현대어 표기본을 수록하고, 고어와 옛 용어를 설명하는 주석을 추가하였다.



신간 사랑을 담으면 특별해집니다

와타나베 가즈코 지음
바오로딸 | 164쪽 | 1만2천원
문의: 02)44-0944

《366일 사랑과 격려의 말》, 《나답게 행복하게》의 저자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의 묵상 에세이다.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마다 저자의 사색과 경험에서 얻은 삶의 깨달음이 실려있고, 성인의 말씀이나 삶의 방식을 시사하는 시구(詩句)도 많이 인용되어 있다. 특히 3장에는 저자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다.



음악회 무지카사크라서울합창단 창단 40주년 대림·성탄 음악회

때: 12월 6일(금) 20시
곳: 목5동성당 대성전 / 전석 무료
문의: 010-9464-0680

다성음악 전문으로 교구 소속인 무지카사크라서울 합창단이 창단 40주년을 맞이하여 12월 6일(금) 20시, 목5동성당 대성전에서 대림·성탄 음악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장인 신기호 신부의 지휘로 아름다운 무반주 다성음악과 오르간 반주의 다성음악곡들을 연주한다.



공모전 제12회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신앙체험 수기 공모

분량: 200자 원고지 기준 50매 안팎
마감: 12월 31일까지(마감일 소인 유효)
발표: 2025년 2월 16일 / 문의: 02)2270-2421~4

가톨릭평화방송과 평화신문이 신앙체험 수기를 공모한다. 전국의 가톨릭 신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내용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하느님 사랑, 하느님 사랑을 이웃에 전하고 실천한 사례, 앓는 이와 임종하는 이를 위한 봉사 체험,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이야기 등으로 응모 할 수 있다.



연극 네 번째 동방박사

때: 12월 24일(화) 16시·19시, 12월 25일(수) 16시
곳: 명동대성당 파밀리아채플 / 전석 무료
예약링크: <https://naver.me/F42DhO26>
문의: 02)3789-7702

연극 <네 번째 동방박사>가 12월 24일·25일,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 채플에서 공연된다. ‘네 번째 동방박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명의 동방박사 이야기가 아닌 그들과 뜻을 같이 했던 ‘또 다른 동방박사’의 이야기다. 아기에 수임을 찾아 경배한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하늘에 나타난 별을 보고 길을 떠났으나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한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가 펼쳐진다.



뮤지컬 뮤지컬 해피 오! 해피

때: 11월 22일~2025년 1월 26일 (화~금) 19시 30분,
(토) 15시·19시, (주일·공휴일) 14시 / 매주(월) 공연 없음
곳: 더굿시어터 / 문의: 02)742-7779
입장료: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참조시 주보 1부로 10명 50% 할인

뮤지컬 속 사제 보이 그룹 ‘해피파이브’는 얼마 전 아프리카로 공연 봉사를 가서 염소 천 마리 기부를 약속하고, 엄청난 크기의 땅을 받아버린 가브리엘 신부님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온 후 무료 공연의 원칙을 깨고 급하게 유료 공연을 개최하게 되는데... 다섯 신부 배역을 맡은 주인공들이 흥겨운 연기로 수놓을 행복한 연말연시를 기대해 보자.